

무사고 운전의 지름길

방어운전요령(V)

金 元 夏

〈교통신문·취재부장〉

지난 '90년 한해동안 전국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단속당한 건수는 7백34만1천8백42 건이나 된다. 전국의 차량이 3백39만4천8백3 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동차 1대가 연간 평균 2.1회씩 위반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든 또는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많은데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된다. 이런 마음이 곧 방어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호에 이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어운전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1. 교차로 부근에서 추돌사고가 많다. 정지할 때까지 앞차를 보라.

차량 대 차량사고의 대부분이 추돌사고인 것이며 그 태반이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주행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추돌사고의 대부분은 앞차의 상황을 살피지 않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인 것이다. 특히 교차로 부근에서 교통이 정체가 되어 자주 정지하게 될 때 앞차가 언제 갑자기 정지할지 모르므로 앞차로부터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32. 교차로 부근에서는 우물쭈물 하지 말 것.

교차로 직전에서 진로가 다르다고 하여 갑

자기 진로를 바꾼다든가 감속하여 좌 또는 우 회전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진로를 통과한 후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지시켜 다음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진로가 잘못되었다 하여 교차로 가운데서 우물쭈물한다든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처음 가는 길을 주행할 경우에는 미리 진로를 충분히 확인해 두어야 한다.

33. 교차로 통과 직후의 진로변경은 확실히 하자.

교차로를 통과하여 곧바로 우회전한다든가 도로외로 나갈 경우에는 후속차에게 추돌당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부터 신호(깜박이)를 확실히 해두는 등 미리 후속차에게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차로 통과 직후 50m 이내에서는 그러한 행위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34. 교차로의 대부분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다.

신호기가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는 매우 위험하다. 때문에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 통과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시가지의 교차로는 거의가 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인 것이다. 때문에 교차로는 원래가 앞을 잘 볼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항상 교차로에서는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35. 교차로에는 감속태세로 접근해야 한다.

신호가 있건 없건간에 교차로에 접근할 때에는 언제나 필히 감속태세로 접근해야 한다. 교차로나 교차도로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이한 생각으로 교차로에 접근한다는 것은 금물인 것이다.

속도를 조절하여 돌발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교차로 앞에서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마음이 짐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36. 양보정신만이 절대우선을 보장할 수 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측방 도로에 있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우측방 도로에 있는 차에게 상대적인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넓은 도로에 있는 차에게도 상대적인 우선권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안전확인 의무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양보정신만이 절대적인 우선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든가 “모든 것이 다 내탓이오”라는 글귀가 바로 이런 데 해당된다고 본다.

37. 우선 정지하라! 안전확인은 그 후에 하라.

교차로나 교차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물론 좌우가 잘 보이는 곳까지 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갑자기 잘보이는 곳까지 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일시정지의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내에 들어가 안전을 확인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때문에 교차로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확실히 정지한 후 잘 보이는 곳까지 서행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38.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이다.

교차로에서의 안전확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좌우를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즉,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자각을 갖고 주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39. 「좌우확인」이라 함은 먼저 좌측방부터 확인하라는 뜻이다.

「교차로에서의 안전확인은 단순히 본다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자각이 필요함과 동시에 보는 방법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차는 우측통행을 하기 때문에 좌측방으로부터 진행해 오는 차가 최초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좌우를 본다는 것은 먼저 좌측을 확인하고 다음에 우측을 확인한다는 적절한 방법의 습관화가 필요하다.

40. 늘 다녀서 익숙해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일수록 특히 주의하라.

특히 방심하기 쉬운 것은 늘 다녀서 익숙해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인 것이다. 「그 교차로는 거의 교차하는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라고 하여 방심한 나머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 언젠가는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즉, 교통상황은 늘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다녀서 익숙해진 교차로일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통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